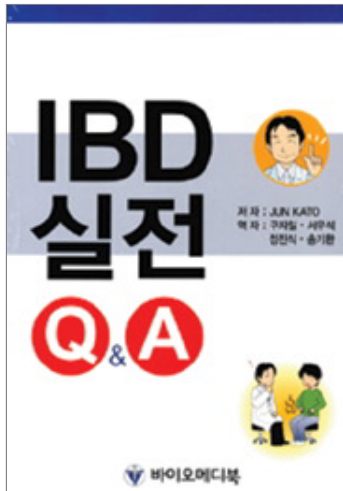




▶▶▶ IBD, 실전 Q&A

가토 준 지음/구자일 외 옮김/바이오메디북 펴냄/3만 8000원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염증성장질환(IBD)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난치병인 IBD의 치료의 전문적인 의료진이나 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지침이나 교과서도 드물다.

최근 가토 준 일본 와카야마현립의대 교수가 쓴 'IBD 실전 Q&A'가 우리말로 옮겨졌다.

이 책은 IBD진료에 익숙치 않은 의사나, 수련중인 의사를 대상으로 중례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상정해 알기쉽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책에서는 '항TNF- α 항체 효과'나 'tacrolimus 사용법'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진료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눈 앞에 있는 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가?'라는 실질적인 의문에 대해 답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 책은 IBD진료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용 전개와 진단이 실제적이고 간결하며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간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IBD 기초지식 ▲궤양성 대장염(UC-진단·최초 발병 외래치료·관해유지치료·재발치료·입원치료·수술) ▲크론병(CD-진단·치료의 원칙과 흐름·항TNF- α 항체 치료·관해기 유지의 follow·입원치료·수술) ▲UC/CD의 공통지식(합병증·암 스크리닝·임신출산·소아 고려자·전문의에 소개·일상생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번역은 대구 구병원 구자일 원장과 서우석·정진식·송기환 진료부원장이 맡았다(☎ 02-763-9188).

▶▶▶ 다들 엄마랑 대화가 통해?

손성은 지음/팜파스 펴냄/1만 2000원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충분한 부모'(2012)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에 다가섰던 손성은 대표원장(서울 강남·생각과느낌소아청소년몸마음클리닉)이 '다들 엄마랑 대화가 통해?'를 출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임상보고서이기도 한 이 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훑아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대화법을 담고 있다.

대화법을 다룬 책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스피치 방법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과 부모의 속마음에 대해 들여다보고, 실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각 갈등 상황에 맞는 공감·이해·행동·대화의 시작에 대해 조언한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엄마는 나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부모의 몰이해, 공감 부족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부모의 무관심, 애정 결핍, 감정싸움 ▲잔소리가 너무 심해-외견 대립, 간섭 ▲엄마는 뭐든 안 된다고만 해-부모의 반대, 강압적 태도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대화 부족, 소통의 어려움 ▲집에 가는 게 스트레스야-가정 환경, 부모의 불화 등을 주제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에 다가선다.

이 책은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인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 행복한 어른으로의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다(☎ 02-335-3681).





▶▶▶ 환인의 길을 찾다

김동규 지음/비매품

2년 전 ‘브레인’이란 책을 통해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솔화했던 서울의대 김동규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가 이번에는 의사로서 지난 30여년의 시간을 ‘환인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1986년 경상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창설을 시작으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을 지나온 30여년의 기록이다.

저자는 경상의대에서 혼자 진료와 수술·교육을 도맡으며 신경외과학교실 창설 3년 만에 교실 연보를 창간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의 경상의대 신경외과학교실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이어 의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에서의 활동을 하나하나 되짚어간다. 5년간의 교실 주임교수 시절에는 가족방문의 날 행사, 후학과 함께하는 사은회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실원들의 친밀감을 높였다. 특히 특유의 기지와 추진력으로 방사선

수술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세 번이나 서울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을 맡아 병원의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아울러 학회지의 편집장으로 학회지의 완전 영문화를 이뤘으며, 이것이 밑거름이 돼 대한신경외과학회지는 SCI 등재 학술지로 발전했다. 이 책에는 저자의 30여년간의 학회 및 병원활동이 당시의 인사말·머리말·편지글 등의 형태로 사진과 함께 잘 정리돼 있다. 이 책의 제목 ‘환인의 길을 찾다’는 모친의 격려에서 옮겨왔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 “어머니께서는 의사는 사주팔자에 환인수(活人數: 사람을 살리는 운수)가 있어야 한다. 환인수가 있는 너는 좋은 의사가 될 거야”라는 말씀으로 아들의 삶을 예견했다(☎ 02-2072-0077).

▶▶▶ 나 홀로 지구촌 오지여행

이현철 지음/여행마인드 펴냄/2만 1800원

이현철 연세대 명예교수(연세이현철내과의원장)가 ‘나 홀로 지구촌 오지여행’을 펴냈다. 이 교수가 연세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30여년 동안 유럽·아프리카·남미·중동·아시아 등 세계 76개국을 주유했다.

이 책에 소개된 나라는 13개국이다. 요르단·레바논·몰타·튀니지·구 유고연방·불가리아·루마니아·콜롬비아·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다. 어느 한 곳도 만만치 않다. 전문 여행가들조차도 버킷리스트에 올려 놓고 직접 발디딜 날을 고대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는 러시아 바이칼호수·미얀마 일레호수·캐나다의 루이스호수 등이 그를 사로잡았고, 이름값대로 이과수·빅토리아·나이아가라 폭포는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여행 이야기 사이에는 저자가 갈무리한 유적 사진들이 즐비하다. 앵글은 고풍스런 역사적 유물과 유적, 놀라운 풍광에만 머물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야기를 그대로 담아 낸다. 모두 8장으로 ▲사막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다-요르단 ▲신이시여, 레바논을 굽어 살피소서-레바논 ▲신나고 즐거운 휴양의 섬-몰타 ▲여로에서 만난 사람들-튀니지 ▲비 오는 날의 동유럽에서의 사색-구 유고연방 ▲나그네의 마음을 들었다 뱉다 하던 곳-불가리아·루마니아 ▲누구나 집을 떠나면 개고생이다!-남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다(☎ 02-877-5688).

